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연관이 있으며 서로 양의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시문 <가>는 노예제도의 허점을 근거로 논지를 펴고 있다. <가>는 개인이 맡게 되는 일은 나면서 부터 운명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이는 가변적이고 무작위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본다. 따라서 <가>는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이 맡은 바의 일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의무라 칭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나>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에는 연관이 있으며 각 개인은 모두 나면서 부터 평등하게 행복하도록 운명 지어져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인과 타인의 행복은 <나>에 나타난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이 출유하고자 하면 아내가 고생을 하고 아내가 절연하고자 하면 남편의 사회적 가치등이 훼손 받는다는 점에서 음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와 <나>는 운명적으로 태어난 삶에 순응할 것을 강요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다>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이 증가할수록 구성원 전체의 행복의 합도 커지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양의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시문 <다>는 전체 구성원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시 한다는 문제점을 수반하기도 한다. <나> 또한 남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륜, 제도, 염치 등을 내세워 개인의 행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렇듯 <나>와 <다>는 각각 <나>는 사회적 미덕이라는 명분하에, <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 제시문 <라>의 표는 행복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A부터 D까지의 국가군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평균은 행복의 산술적인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평균이 높다는 것은 해당국가에서 느끼는 행복의 총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준편차란 사람들이 각 나라의 행복의 평균에 얼마나 근접하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국가 내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군은 D로, 가장 비이상적인 국가군은 A라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C와 B국가군의 경우 C국가군은 평균은 낮으나 편차가 작고 B국가군은 평균은 높지만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국가군의 우위를 판가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국가군은 제시문 <나>와 <다>와 각각 연결지어 질 수 있다. 먼저 제시문 <다>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시 여기는 입장이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행복의 희생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국가에서 행복을 산출하는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행복의 총량이 크기만 하다면 이러한 국가를 지지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다>는 편차의 정도는 무시한 채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B국가군을 이상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는 모든 개인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행복할 건리를 가질 것을 강조한다. <나>에 따르면 B국가군과 같이 눈에 조이는 행복의 평균만을 생각하여 개인 각자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은 해옥도가 낮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시문 <나>가 선호하는 국가상은 행복의 극대화만을 끌어내기에 급급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 행복의 양이 작을지라도 해당국가에 속한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형평성을 띄는 국가일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C국가군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